

도 '아시안스마트 농생명 벨리' 구축

5대 농생명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 위해 구성 요소별 취약 부문 보완 과제 발굴 추진

전북도가 농도 전부의 강점을 살려 4차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미래 농업의 대표 모델로 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하는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벨리'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개척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한 배경에는 그동안 전북이 잘하고 있었고, 차별화된 발전역량을 갖춘 분야를 성장동력화 한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은 이미 지난 2015년에 농생명 R&D특구가 지정됐고, 혁신도시에 농진청 5개 국가기관과 국가공공·대학 등 41개 연구시설, 약 1,500명에 이르는 박사급 연구인력 등 국내최대 농생명 R&D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종자(김제), 식품(익산), 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첨단농업(새만금) 등 혁신도시와 새만금 사이에 5개의 농생명 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 미생물~종자~식품~소스를 아우르는 농생명산업 육성의 최고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5대 농생명 클러스터 등 주요 거점을 연계할 도로, 철도, 항만 등 SOC가 2020년까지 구축돼 세계 농식품산업의 진출 전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5대 클러스터의 완성도 제고에 필요한 R&D, 기업유치,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등 클러스터구성 요소별 취약한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추진하게 되면 이전 보다 훨씬 높은 농생명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공청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계획 목표 연도인 2020년 전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측면에서 최대 4.3조원, 고용유발 측면에서도 최대 4만4,000명이 식품과 연관 산업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GRDP 증가 효과 측면에서도 최대 1.6조원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비롯해 미생물, 농기계, 첨단농업 등 약 1.1조원(민자포함)의 투자가 될 경우 약 6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전북의 GRDP(45.4조원)의 5%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2.4조원 상승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특히 2단계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해 1단계 산

업단지와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국제 식품 전시 컨벤션 국제 행사 개최로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5공구에 '농생명 청년 창업 특구'를 조성해 청년의 혁신능력과 농업의 첨단화와 융복합 산업화 접목을 통해 국가적 저성장 극복과 미래 청년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농기계 품질검증 테스트 및 해외 맞춤형 시험설비 인프라를 구축해 정부의 농기계 수출 세계 10대 강국 도약에 기여할 방침이다.

미생물은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사

용되는 고부가 바이오 소재로서 '인체유용 미생물산업 육성', '동물용 백신기반 R&D지원 및 산업 육성', '첨단 미생물 발효소재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해 국내 미생물산업의 혁신적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명공학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5대 농생명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이면 제2의 혁신도시 조성의 새만금의 연계 투자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19대 대선공약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 명실공히 전북을 '아시아 최대의 농생명 벨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안재용 기자

장애인들 은빛 설원 향연 오늘 열려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북선수단 6종목 20명 출전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7개 종목에 17개 시도, 88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나흘간 열전을 펼치게 된다.

전북 선수단은 휠체어컬링,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빙상 등 6종목에 20명이 출전한다.

전북 선수단은 빙상에서 김윤희 선수(청각)의 5년 연속 2관왕 달성과 작년 전국하계체전 크로스컨트리스키 신인선수상을 수상했던

임준범 선수(시각)의 첫 입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체종목인 휠체어컬링과 아이스슬레지하키 선수단의 선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년 대회 3관왕인 크로스컨트리스키 국가대표 권상현 선수(지체)는 같은 등급의 타 시도 선수들의 대회 불참으로 해당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2년 연속 3관왕 달성은 어렵게 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대회의 개최식은 7일 오후 4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안재용 기자

문화콘텐츠 창의인재 교육생 모집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업발전소 창작팀 15팀... 14일까지 문화콘텐츠아카데미 교육생 40명... 28일까지

전북도와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는 전북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업발전소 창작팀 15팀과 문화콘텐츠아카데미 교육생 40명을 모집한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까지 원하는 창작자와 문화콘텐츠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게임·디자인 관련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은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창의인재양성팀(063-282-2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콘텐츠코리아랩의 경우 14일까지이며, 문화콘텐츠아카데미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잠재되고 있는 창의인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육성 지원해 창작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질적 콘텐츠로 제작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0일 마을기업 전문과정 교육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10일 도내 마을기업의 역량강화와 자립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차년도 신청 예정 마을기업과 우수마을 신청 예정 기업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그 밖에 마을기업으로 관심 있는 마을기업 대표와 실무자도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마을기업 전문과정 교육은 마을기업의 공통된 어려움 중 하나인 회계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법인 회계 이론과 세무관리, 고 객관리 등 회계프로그램 활용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마을기업에 유용한 프로그램 보급과 활용법 교육을 통해 실무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기자

공덕 산란계 농가 시의심축 발생

김제 공덕 산란계농가에 AI 의심축이 신고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전북도 방역본부에 따르면 전화회찰 중 폐사(40수) 등 AI 의심증상이 인 지돼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및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농가 500m 이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 11만9,000수와 메추리 8만수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희망자 모집

전북수산물기술연구소, 28일까지 접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산업을 경영하려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로 전북도 수산업이 큰 활기를 띠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현재까지 1,575명(어업인후계자 1,241, 전업경영인 288, 선도우수경영인 46)을 선정해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09명을 선정해 72명에게 70억원의 용자금을 지원했다.

전북도에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성공을 일군 많은 어업인들이

있으며 지금도 어업현장에서 젊은 팍팍을 흘리며 젊은이들로 부터 많은 귀감을 사고 있다.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에서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이수산 이 정 대표는 '2007전업어가' 11선도어가로 선정돼 2016년에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제분야 대상에 선정된 참바다영어 조합법인의 김중학 대표 또한 1996년 어업인후계자 출신으로 2005년에 해양수산 신지식인에 선정돼 지금도 사

업추진에 여념이 없다.

이 외에도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의 김병섭 대표는 2012년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돼 '미꾸리 대량종묘 생산 성공'을 통한 종복원 및 식품개발'로 2015년에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정읍 칠보수산 김정현 대표는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을 단계적으로 밟아온 수산인으로 해양수산부와 수산물가공협회가 주최하는 '2013년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칠보합생장어'로 동상을 수

상했고 지난해에는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대표적인 귀감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전북수산물기술연구소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희망자를 28일까지 모집 중으로 뜻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해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해 유능한 미래수산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232,000㎡
 - 사업시행자: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